

정동제일교회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시대를 잇는 역사적 동역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ST)은 한국 감리교 선교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동제일교회는 이러한 특별한 인연을 기념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 장학금을 제정하였습니다.

선교의 초석과 매클레이 신학교

로버트 매클레이 선교사는 고종 황제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역에 관한 선교 윤허를 받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를 비롯한 감리교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형 찰스 매클레이가 설립한 매클레이 신학교(Maclay College of Theology)의 학장으로 봉사하며 신학 교육과 지도자 양성에 헌신하였습니다.

CST의 설립과 한국 감리교회의 인연

매클레이 신학교의 교육적 유산은 남가주대학교(USC) 종교학과를 거쳐 1956년 설립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CST는 한국 감리교 선교와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한국인 학생을 교육하여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배출해 왔습니다.

장학금을 통한 새로운 동역

정동제일교회는 이러한 특별한 역사적 관계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아펜젤러-정동제일교회 장학금’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CST를 후원함으로써 한국인 학생들이 신학적 역량과 영적 지도력을 갖춘 미래의 교회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한국 감리교 선교의 출발점인 정동제일교회와 그 역사적 유산을 이어받은 CST가 시대와 국경을 넘어 함께 미래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뜻깊은 동역의 상징입니다.



(2024년 10월 20일 정동제일교회 예배, 후원 감사패 전달)



CLAREMONT
SCHOOL of THEOLOGY